

## 엔젠바이오, 온코닉테라퓨틱스와 NGS 기반 동반진단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 제일약품 신약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와 고행암 항암신약 동반진단 개발

<2020-12-07> 정밀진단 플랫폼 기업 엔젠바이오(대표이사 최대출)가 글로벌 항암신약 연구개발 전문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와 NGS 기반 동반진단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제일약품에서 설립한 글로벌 혁신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현재 차세대 이중표적항암제인 JPI-547을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고행암 표적치료제 후보물질인 JPI-547 이중저해항암제(PARP/TNKS dual inhibitor) 동반진단을 위한 바이오 마커 및 유전체 NGS 진단패널을 개발하여 임상시험 대상 환자 선별에 적용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반진단 허가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김 존 대표는 "엔젠바이오와의 동반진단기술 공동개발을 통해 신규 항암 바이오마커 발굴 및 동반진단키트 개발 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난치성 암종의 신규 적응증 개발을 통한 신시장 확보 및 JPI-547의 가치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젠바이오 최대출 대표이사는 "온코닉테라퓨틱사의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상용화가 검증된 NGS 기반 고행암 정밀진단 제품과 분석 SW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엔젠바이오의 수익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온코닉테라퓨틱스사도 효율적인 신약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사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